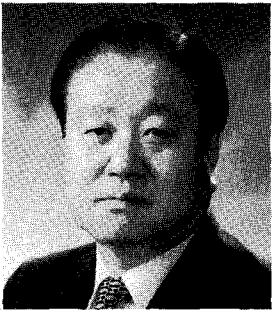


## 한국에너지협의회 제29차 이사회 개최

第5代 會長 文熙晟氏 選任



한국에너지협의회  
第29次 理事會가 지  
난 12월 12일 오전  
11시 30분 무역클럽  
51층 회의실에서 개  
최되었다.

이날 열린 理事會에  
서는 한국에너지협의  
회 제5대 회장으로 文熙晟씨(前 한전 이사장)

를 選任하였다.

文희장은 인사말을 통해 「에너지협의회는 앞  
으로 에너지산업 분야의 구심체로서 에너지업  
계의 현안문제에 대해 衆智를 모아 이를 대변  
하고, 회원사의 상호협력 증진과 유대강화를 위  
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WEC 연구위원회  
활동 등 국제교류를 더욱 강화하여 회원사의  
이익증대를 위해 기여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 WEC 2004 총회 「시드니」 유치

次期議長에 J. Adam 선출

지난 11월 12~14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  
된 97년도 세계에너지회의(WEC) 집행이사  
회에 한국에서는 문희성 이사장, 이승차 기술  
기획처장(한국전력공사), 김진모 이사장(석탄  
산업합리화사업단), 남궁견 부사장(한국지역  
난방공사), 홍운호 업무이사(에너지관리공단),  
신동식 과장, 윤상복 과장(한국수자원공사),  
장기현 사무국장, 이성룡 과장(한국에너지협  
의회)등 9명이 참석하고 돌아왔다.

금년 집행이사회에서는 71개 회원국 및 7  
개 국제기구 대표 약 300명이 참석하였으며,  
WEC “에너지부문 자금조달” 보고서 발표, 태  
국에너지데이 행사, 전시회, 산업시찰 등의  
부대행사가 개최되었다.

### 집행이사회 주요 결정사항

• 제19차 총회 : 지난해 제18차 총회 유치에  
실패한 호주가 단독으로 개최신청을 하고, 자  
금마련, 국내위원회 활동, 풍부한 에너지자원,  
개최도시 시설우수 등이 인정되어, 일부 회원  
국이 내년도 집행이사회에서 결정하자는 의견  
을 제기하였으나 의장단의 강력한 지원으로  
유치가 확정되었다. 개최도시는 시드니이며  
2004년에 열린다. 제17차 총회는 1998년 미  
국 휴스턴, 제18차 총회는 2001년 아르헨티  
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리기로 이미 계  
획되어 있다.

• 차기의장 선출 : 미국의 J. Adam씨와 브라

질의 J. L. Alqueres씨 등 2명이 경합하여 투표결과 미국의 J. Adam이 WEC 집행이사회 차기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임기는 1998~2001년까지 3년이며, 의장당선자 J. Adam씨는 현재 Black & Veatch社 사장겸 WEC 미국국내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 **부회장 1명 선출** : 지역안배 원칙에 따라 남미 베네주엘라의 Mr.J.Tredinick가 선출되었다. 현재 집행이사회 부회장은 5명이며, 나머지는 미국, 영국, 요르단, 보츠와나 대표가 각각 맡고 있다.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 행정, 기획, 연구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중 10명이 임기만료되어 홍콩, 덴마크, 필리핀 등 10개국에서 새로 선임되었다.

• **98년도 年會費 인상** : 97년도 대비 4%인상(안)에 대하여 중국 등 다수 회원국이 반대 입장을 피력하였으나,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한국의 98년도 연회비 부담액은 약3만파운드가 되며, 최근 환율인상으로 원화환산 금액은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 **신규 회원국 가입** : 북한, 이라크 등 4개국이 2년이상 연회비 미납으로 제명되고, 말리 등

2개국이 신규 가입하여 총회원국수는 96개국 이 되었다.

• **제17차 총회** : 1998. 9. 13~17간 휴스턴 George R. Brown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된다. "새로운 밀레니엄의 지속발전을 위한 에너지 기술" (Energy & Technology : Sustaining World Development into the Next Millennium)을 주제로 논문발표 (Issues Paper Sessions), 기조연설, 에너지 강연, 라운드테이블 토론, 워킹그룹 세션, 전시회, 학생프로그램, 산업시설 방문 등 다양한 행사가 동시에 열린다.

• **제18차 총회** : 2001. 10. 21~25일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되며, "에너지 시장 : 새로운 밀레니엄의 도전" (Energy Markets : The Challenges of the New Millennium)이 주제로 선정되었다.

• **99년도 집행이사회** : 폴란드가 단독으로 개최를 신청하여 결정되었으며, 1999. 9. 21~23일간 폴란드 남부의 고도인 Cracow에서 열린다. 98년도 집행이사회는 휴스턴에서 총회 직전에 개최된다.

• **WEC 1998 Statement** : 에너지산업의 자금조달 관련 내용으로 결정되었으며, '신년메시지' 형식으로 발표된다.(본지 WEC Statement 참조)

• **WEC 공로상 수상자 결정** : 남아공화국의 Dr. I. C. McRae가 아프리카지역의 電化사 업과 WEC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첫 수상자가 됨. 이상은 WEC 설립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시상은 매3년 총회때마다 거행되고, 첫 시상은 내년 9월 휴스턴 총회에서 갖게 된다.

• **WEC 집행기구 조직변경**: 의사결정을 보다 신속히 하고 중앙사무국의 집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위원회(Governing Committee) 구성(안)을 본부에서 제안함. 위원구성, 역할, 정관개정 등에 대해 각국 대표들이 문제점과 의견을 제기하였고, 집행이사회 의장당선자 및 신입 사무총장 등 집행부의 의견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 내년도 휴스턴 집행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 에너지부문 자금조달 보고서

WEC가 동경총회(1995) 이후 추진한 "Financing the Global Energy Sector- The Task Ahead" 위원회의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패널토의를 가졌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Dr. A. Churchill (미국) 등 위원회 참여인사 4명이 분야별로 요약 발표하였다.(본지 WEC보고서 참조). 특히 아시아개발은행(ADB) 이봉서 부총재의 발표내용을 간추린다.

ADB같은 국제금융기관은 각국의 인프라 개발에 민간부문 참여를 촉진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ADB는 프로젝트 금융 은행 역할을 했으며, 에너지 및 기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출의 절반 이상을 할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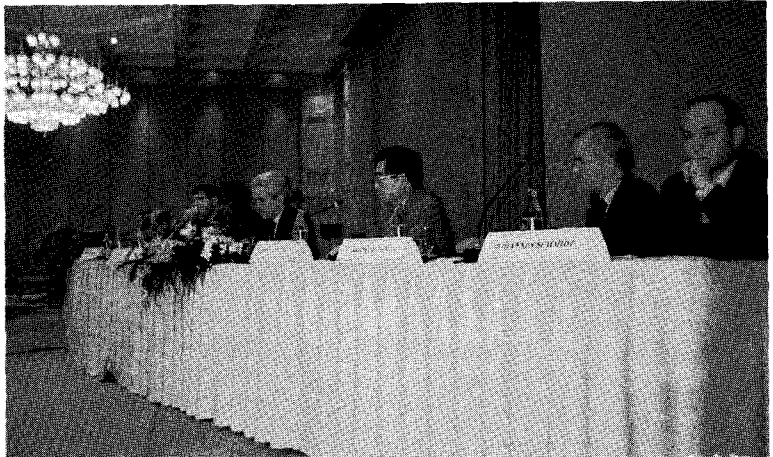
그러나 아시아지역에 민간

부문 자금유입의 급속한 증가로 인프라 부문에 대한 은행의 전략은 극적으로 변화했다. 단순한 프로젝트 금융의 제공자에서 현재 ADB는 민간자본의 투자환경 조성을 촉진하는 개발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ADB는 공공부문 대출을 활용하여 "환경 조성"(enabling environment) 및 "우수한 관리"(good governance)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ADB의 공공부문 대출은 항상 중요한 정책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프라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부문을 도와 그들의 투자 활동을 쉽게 만들어 주는 역할이다.

ADB는 또한 검증되지 않은 환경에서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 재원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여러 BOT 프로젝트에서 ADB는 정부를 도와 정책지침과 시행절차를 수립하여 민간부문의 보다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한다.

민간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자금조달이나 기금운영을 통한 방법 이외에, ADB 역할의 또다른 한 분야는 금융재원 조달을 위한 노력이다. ADB는 국제 자본시장을 개발하고, 아시아지역 인프라에 선진국 투자자들을 끌어



들이기 위한 착수금(seed money) 성격으로 재원을 활용한다. 지난 2년간 세계적인 대규모 기관투자자들은 선진국의 잉여저축을 아시아 개도국에 투자하도록 하는 일에 ADB와 함께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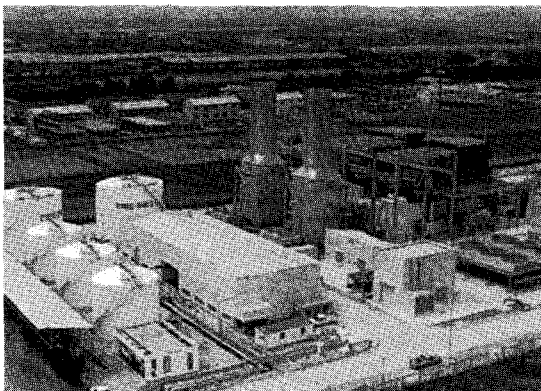
WEC 연구의 결론을 보면, 아시아지역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는 국내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같은 결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근거로 WEC는 아주 단순한 논리를 적용한다. 첫째, 아시아의 에너지요구가 외부자금에 의존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다. 둘째, 이 지역의 국내저축은 연간 1조달러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600~1,000억달러로 추산되는 에너지부문 자금수요를 충당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본인은 장기적으로는 국내 자본시장이 역내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공급해야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내 자본시장의 개발, 특히 장기채권시장 개발에는 시간이 소요된다. 이 지역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내 채권시장은 아직 장기 국내채무를 공급할 능력이 없다. 아시아 채권발행의 절대다수는 국내시장보다는 국제시장에서 이루어졌다. 채권발행자들은 거의 모두 정부 또는 대규모 은행들이었으며, 구

매자들은 주로 선진국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보면, 채권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1992년 말레이시아는 채권발행자는 누구나 사전에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법령을 공포했다. 1년후 60억달러 상당의 말레이시아 채권이 발행되었다. 그 이유는 등급에 의한 믿음으로 국내 기관투자자와 외국 펀드매니저들이 말레이시아 화폐에 훨씬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실행가능한 국내 채권시장의 개발은 단순히 등급 그 자체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뢰할만한 청산 결제 시스템등 잘 개발된 시장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또한 민간채권 발행을 위해 시장원리에 의한 벤치마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ADB 등 국제금융기관들이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시장 인프라 개발에 지원을 했다. 예를 들어 ADB는 일부 국가에 신용평가기관과 공탁시스템 설치를 위한 금융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다. 또한 금융 및 자본시장 부문에서의 ADB의 정책금융은 이들 정부가 자본시장 개발에 필요한 정책 및 규제시스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태국 에너지 데이**

“미래의 에너지”(Energy for Tomorrow)를 주제로 태국의 주요 에너지정책이 소개되었는데, 주로 에너지 효율 및 절약 관련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태국은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약 60%이며, 지난 10년간 에너지수요 증가율이 연10%를 넘고 있다. 태국전력공사(EGAT)가 발표한 에너지수요관리(DSM) 프로그램에 대해 요약한다.

- 아시아지역 최초 DSM 마스터플랜 채택 (1991)
  - 정부재정 189백만US\$, 세계은행 지원 15.5백만US\$
- 실천전략 (1993년부터)
  - 자발적 협정을 통한 시장 변화 유도  
전등 제조업체들과 자발적 협정으로 제품 생산을 유도하고, EGAT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캠페인에 자금지원
  - 에너지효율 등급제  
냉장고와 에어컨 제품에 대해 효율등급제 실시

- 고객지향형 프로그램 개발  
일명 ‘그린빌딩프로그램’으로 약 140개의 호텔 등 대형건물에 부하 모니터링 및 제어설비 설치, 1개 건물당 1,200kW~1,360kW의 피크수요 절약 성과
- 민간부문과 파트너십 유도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ESCO)을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무이자 자금지원 계획
- DSM 시행의 교훈
  - 현지의 문화적·사회적 실정에 맞게 계획되어야 한다.
  - 후진국의 경우 에너지절약제품의 최초 구입가격이 중요한 고려사항.
  - DSM투자에 대한 확고한 자금지원 메카니즘만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케함.
  - ESCO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부문부터 실시해야 한다.
- DSM 실행성과 및 필수요건
  - EGAT는 1997년에 피크전력 500MW, 총 3,400Gwh의 전력 소비절약 예상
  - 민간부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조 및 활성화
  -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지원이 관건

